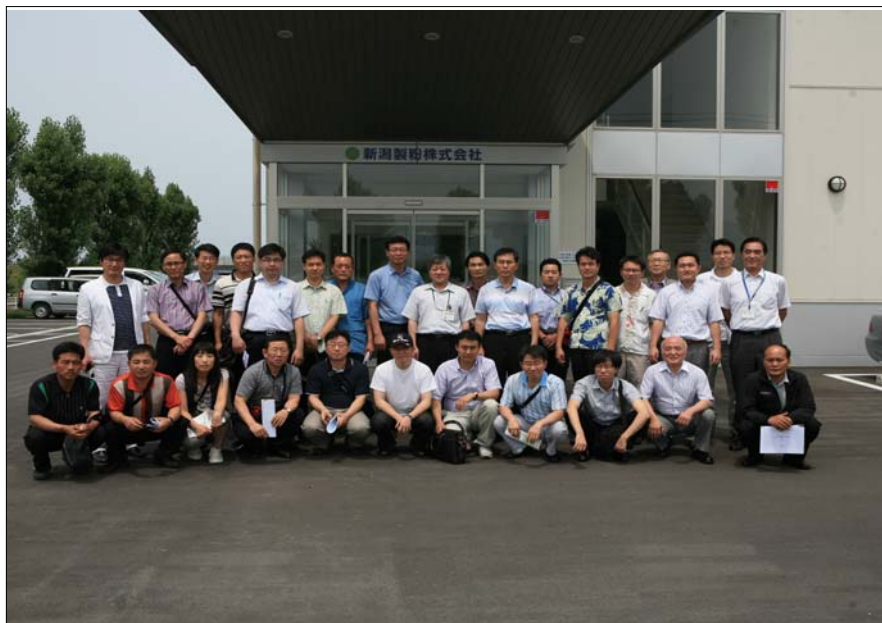


보고자 : 이선희

**-선진 쌀가공식품 산업현장 견학을 위한 -
일본, 연수결과 (출장)보고서
('10.7.7 ~ 7.10)**



목 차

1. 연수 목적 및 개요	1
2. 연수내용 및 정책시사	2
3. 기타 연수사진	8

1

연수 목적 및 개요

□ 연수목적

- 쌀 시장개방에 따른 대처능력 배양 및 선진 일본국의 쌀 가공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, 쌀 가공 및 소비 정책 자료로 활용
- 현장에서 직접 쌀가공 및 소비업무를 담당하는 시도담당의 국제 감각을 제고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쌀 가공 및 소비대책을 추진

□ 연수개요

- 일 시 : 2010. 7. 7(수) ~ 7. 10(토), 3박 4일
- 출장자 : 농촌정보문화센터 이선희 외 21명
 -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포함 지자체 공무원 16명
 - 일반기업 및 관련기관 담당자 6명
- 주요 방문기관
 - 〈1일차〉 동경 : 라이스 뮤지엄, 한국식채 이동막걸리
 - 〈2일차〉 니이가타 : 일본 농림수산성 니이가타 농정사무소
사토식품공장(일회용 무균밥 제조공정)
 - 〈3일차〉 니이가타 : 니이가다제분공장(쌀가루 제조공정 등 현황)
후지슈텐 도정시설
 - 〈4일차〉 동경 : 이와테 안테나 숭(쌀 자동판매현황 및 실태)

2

연수내용 및 정책시사

- ◇ 일본의 농식품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취제한 쌀가공식품 활성화 등 선진사례에 대하여 각시도관계자와 기업인 관련정보수집
- ◇ 우수 및 유사정책의 추진자료 수집 연찬회, 교육등에 활용

【1일차 : 동경 라이스뮤지엄, 한국식채 이동막걸리집(マッコリ家)】

① 라이스뮤지엄(ご飯ミュージアム)을 통한 쌀 소비 촉진 전시, 체험, 홍보 등 운영 실태

- 쌀 소비감소 해결 방안모색 (생산, 가공, 유통, 마케팅 등)
- 시장변화에 대응 명칭변경
쌀 → 밥 박물관으로
- * 설립비용 600만엔(사업비260만엔)



〈라이스뮤지엄 책임자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〉

- * 라이스뮤지엄 : 다양한 쌀 문화를 체험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식생활교육 장소
년간 65만명(주말2만5천명) 방문요리교실 월10회이상 운영기획행사프로그램 정부지원
- 연간 운영예산은 4백50만엔(생산농가3백만엔+정부1백50만엔)
- 시설물의 위탁 전체 11개 시설 중 요리실습관, 레스토랑, 기념품판매장 위탁경영

〈정책시사점〉

- 쌀 소비확대를 위한 쌀 문화 체험관 건립 필요성
- * 현재 쌀 문화체험관 건립·운영 관련(농협중앙회, 경북상주 ‘11년 추진 검토)
- 밥 중심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1인당 쌀 소비 촉진에 큰 역할 등



〈다양한 쌀 가공제품 전시 공간〉



〈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〉

② 한국식채 이동막걸리집 (한국 막걸리 일본에서의 인기비결)

- 일본내 한국막걸리 유통업
및 판매점포 운영 실태 청취
- 우리 막걸리 수출현황 및
일본인의 소비 실태



〈저펜이동막걸리 김경연 지배인 설명〉

* 매월45~50컨테이너 수입, 시장점유율 70%, 최근 국순당, 진로, 서울탁주등 경합

〈정책시사점〉

- 한식세계화 측면에서의 막걸리 세계화 방안지원
- 일본내 막걸리 시장의 과열 경쟁, 덤핑판매 등 보다 체계적인
관리 및 국내 수출기업인과의 간담회 등 필요

【2일차 : 니이가타 농정사무소, 사토식품 방문, 간담회개최】

① 농림수산성 일본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정책운영 실태



〈일본 농림수산성 쌀수급 및 소비정책설명〉

- 쌀 수급관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할
- 미국의 신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('09.3)시행 등

- (생산자) 주식 이외의 가공용쌀 재배시 지원 '09)10a당 5만엔→'10)8만엔

- (가공기업) 쌀가공가공 공장 설립시 총액의 50%정부지원

※ 모찌, 사케 등 기존에 사용하는 기업에는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품목에만 지원

○ JA(전중)에서 휴경논 이용 생산하는 쌀 에탄올생산 활용방안

〈정책시사점〉

○ 쌀 수급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지자체, 농협, 농업간의 역할 분담하는 체계구축필요

○ 일본 미국의 신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('09.7월부터 본격시행)운용
양곡관리법령에 쌀가공산업육성과 관련한 법령개정 운용 필요

-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가공용쌀 계약재배와 쌀가공기업
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

(생산자) 우리도 타작물재배(1ha/3백만원) 지원사업과 연계한 가공용 쌀
생산단지 육성을 자치단체, 농협과 협회가 참여하는 정책

(가공기업) 쌀가공기업 융자(3%)지원과 브랜드, 포장 등 보조사업 검토

② 사토식품공업주식회사 방문



〈일본 무균밥 생산공정 견학〉

- 무균 진공밥 생산과정 견학
 햅쌀 소비기여
- 쌀 1/Kg 부가가치 4배 이상
 유통기간 8개월까지 가능

〈간담회 : Niigata Chisan Hotel 회의실〉

□ 주니가타한국영사관총영사(연상모)

- 니이가타의 쌀의 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, 오는10.16~17 APCE 농업관련 장관회의가 니가타에서 개최 할 예정, 준비필요



□ 協同組合米ワールド 2 1 普及協議 (협동조합 미월드21 보급협의회)전무이사(다카하시)

- 밀가루 연간 5백만톤 중 10%사용(R10)운동 전개
- 쌀가루 연구는(17년 전부터) 예가와 선생이 시작

□ 江川技術士事務所(예가와 기술사 사무소)江川和徳 所長 (예가와 카즈노리 소장)

- 쌀 가공산업은 쌀가루가 매우 중요
 - 현재 200메쉬 이상 생산, 최고 500메쉬 가능, 쌀가루가 고울수록 가공적성이 높다(비와 안개와 비교)
- 쌀(45%이상)은 밀(30%)보다 수분 흡수율이 높은 음식으로 여성, 고령자등 애용해야 한다.

【3일차 : 쌀가루 제분공장 공장, 후지슈텐 도정시설 방문】

① 新潟製粉株式會社 (니이가타제분 주식회사) 제2공장 藤井義文 工場長 (후지이 요시후미 공장장)



〈일본 니이가타 제분공장 방문〉

※ 내부는 시설의 보안을 이유로 공개 거부

- 쌀가루 Kg당 59엔(원료 20엔, 가공비39엔) 공장설립시 50%지원

〈정책시사점〉

- 쌀가루 제조기술(기류분쇄)등 국내기업체에 정보공유 필요
-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 쌀 빵 급식에 대한 밀가루 빵과의 가격 차액 지자체와 농협 등이 공동 지원

② FUJII SYOUTEN 후지슈텐 도정시설

- 1차 가공 원료 공급처로 사케, 과자, 맥주용 등 도정 시설로 250메쉬 이상 생산가능
- 수입쌀가루 지정 도정실 운영



〈후지슈텐 책임자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〉

【4일차 : 이와테 안테나 샵 방문】

① 즉석 쌀 도정 자판기



〈쌀자동판매기 설명하는 장면〉

- 이와테시에서 자동 판매기
기증하고 민간기업이 운영
- 일반쌀 5kg 1천8백엔인 반면에
즉석도정 자판기 판매는 1천엔
수준

※1대당가격 10년전 100만엔(현400만엔)

〈정책시사점〉

- 현대의 주부, 학생들에게 편리할 것으로 아파트단지, 자취생
거주 지역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지자체 참여 홍보필요

3

기타 연수사진

□ 기관방문 및 쌀가공제품



< 연수과정 동경에 도착해서 >



< 라이스뮤지엄 현장 모습 >



< 동경라이스뮤지엄 방문 >



< 니이카타 농정사무소 방문 >



< 쌀가공 전문가 초청 간담회 >



<후지슈텐 쌀가공시설 견학 >